
Heinrich Heine und Ludwig Börne

— 「Ludwig Börne. Eine Denkschrift」 를 중심으로 —

오 광 웅

目 次

1. 머릿말
2. 역사적인 것
3. 革命과 省察
 - A. 정치적 理念과 정치적 態度
 - B. 나사렛의 인간과 헬라의 인간
 - C. 예술과 정치 혹은 才能과 個性
 - D. 변증법적 해결
4. 獨文 要約

1. 머릿말

하이네(H. Heine)와 뵘베(L. Börne)는 독문학 사상 정치적 暴風怒濤시대인 1830년대를 건후하여 사회 정치적 문제에 참여, 작품활동을 통하여 세계관적 과제를 수행했던 所謂 <청년 독

일파>의 대표적 인물이었음은 周知하는 바다.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전쟁, 王政復古 그리고 파리의 七月혁명의 강한 영향권 안에 들어 있던 독일은 절대주의의 旧習을 쓴 체로 立憲君主 체계의 守護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이네와 뵘네는 <청년 독일파>로 불려진 다른 青年 작가들과 함께 <인간의 해방>이라는 同一한 명제를 가졌었고, 따라서 同時에 싸워 이겨야 할 共同的 敵을 目前에 두고 있었다. 하이네와 같은 血統이자 선배 작가던 뵘네의 이러한 同類的 同僚의 관계는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1830년의 七月혁명 이후의 政治的 行動에서의 차이로 결정적 기점으로 兩人的 關係는 생각을 거듭하다 그 不便한 關係는 급기야는 敵對的 關係로 변하고 말았다. 兩人은 서로 각자의 立場의 正当性을 주장함에, 혹은 공공연히 혹은 馬脚을 노출시키지 않은 암시적 방법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兩人을 심판대에 올려 놓고 그 正当性과 그 不当性을 지적함으로 判決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또한 兩人的 芸術觀, 인생觀, 세계관이 正面으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 다만 政治, 哲學, 芸術등 兩人 사이의 争点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作品에 충실하여, 두 사람의 상호비평을 통한 各者の 実物을, 그 実物대로의 크기를 비추어 내려고 하는 데 utes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였을 뿐이다. 주로 하이네의 「Ludwig Börne. Eine Denkschrift」¹⁾를 中心으로 하였고 뵘네의 「Briefe aus Paris」를 참고로 하였다.

하이네의 「Ludwig Börne. Eine Denkschrift」가 決定的 형태로 발간된 해는 1840년, 뵘네의 死後 3년째 되는 해였다. 이 회고록에서의 대상 인물은 「그의 內面の 最上의 것에 對한 敵이자 그의 보다 큰 세계관의 敵」²⁾이던 뵘네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이네는 그러나 뵘네란 개인의 罵倒에 보다는, 자신과 뵘네의 사이에서 서로 반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기 자신의 立場을 說明하면서 思想의 全体的 包括的 조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것은 또한 「10년 [파리생활의] 세월의 精神과 문제성과의 정열적 대결의 표시」³⁾이며 그 총결산서라 할 것이다. 하이네의 이 회고록이 완성된 1840과 그 속에서 전개되는 장면의 1831년사이 10년의 기간은 하이네의 파리 체류 최초의 기간이고, 쉴러 (F. Schiller)에 있어서 「Don Carlos」와 「Wallenstein」사이 기간과 같이, 주로 이론적 固着化에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다. 이론적인 諸問題들에 대한 明瞭性을 確保하려는 의도적 작업은 歷史的, 美學的인 評論의 形態로 나타났던 것이다. 執筆 方法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Schiller에게 있어서는 체계적 학문적인 학술 논문이 된 한편, Heine에게 그의 天稟에 따라 그리고 편이한 시대 상황에 알맞게, 광범위한 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 조성에 간여할 목적으로, 革命的 경향을 띤 저널리즘

1) Ludwig Börne. Eine Denkschrift. In: Schriften über Deutschland, hrg. V. Helmut Schanze, Insel Verlag Frankfurt a.M. 1968, S. 451, 以下 (B. D. -)로 줄임

2) Dichter über ihre Dichtung. Bd. 8/I, hrg. v. Norbert Altenhofer, Heimeran Verlag München 1971, S. 416

3) Inge Rippmann, Heines Denkschrift über Börne. In Heine-Jahrbuch 12, 1973, S. 41

風의 散文의 형태가 되었다.)⁴⁾ 嚴格하며 학문적인 독일적 전통을 깨고 느슨하면서도 경쾌한 에세이식의 詩의 표현 방법은, 정치적으로 심한 검열의 철폐를 위하여 관청과 불필요한 不和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戰略的인 필요에서 었다.

그런데 하이네는 어째서 뵘베의 죽음후에 그를 屬倒하는 회고록을 쓰게 되었을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테마에 보다는 지엽적이며 개인적 비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당시의 저널리즘이 하이네에게 <死体모독>이니 하며 비난의 화살을 들리게 했던 이 회고록의 집필 동기엔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1837년 7월 29일 파리에서 하이네의 그의 독일 친구 헤르만 데트몰트(Hermann Detmold)에게 보낸 편지엔 그 정치적인 동기를 읽을 수 있다.⁵⁾ 뵘베의 死後 3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뵘베 개인의 명성이 높아져가고 神聖視되어 가고 있음에 하이네는 주목하였다. 뵘베로 代表되는 過激性과 原則에의 忠實이, 사회 정치와 모든 분야에서 自由의 胎動의 숨결을 느낀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한 革命家에게서 바라는 것이었다. 그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内の 文學圈의 연합 總師로 흠모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그의 과격 급진주의적 정치 이념이 崇拜되어 가져올 結果를 내다 보던 하이네는 그와 같은 추세를 두려움으로 관찰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냉정을 되찾아 유연해진 하이네의 정치적 理想에 대한 役理解는 당시 兩大 진영이던 보수 귀족 세력과 급진 공화파의 직접적인 공격을 유발하였었다. 하이네는 뵘베의 生存時에 그에 대한 비난에 침묵으로 무시했던 무관심에서 나와 전면 반격을 가함으로써, 미묘하게 된 자신의 위치를 밝히면서 그것을 더욱 확고히 해야하는 不可避性에 직면하였던 것이었다. 그에 대한 뵘베의 비판을 조목 조목별로 열거, 그 不當性을 지적하고 반격하면서 자신의 優位的인 정치관 세계관 예술관의 後光을 받는 立場이 자연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 작품의 眞價는 그 동안 숨겨져 있다가 토마스만(Thomas Mann)에 의하여 「니이체(Nietzsche) 이전까지의 가장 천재적인 작품」⁶⁾이란 評을 받음으로 새로이 드러나게 되었다.

뵘베는 파리 혁명이 있던 1830년, 시사 정치 명론 기자로 파리에 건너가서, 거기서 혁명 이후의 프랑스 정세를 관찰하여 프랑크폴트의 그의 친구 자네트 보울(Janette Wohl) 여사에게 書信의 형식으로 보고하였다. 본래부터 출판할 計劃이었던 이 편지를 収合하여 된 책이 「Brie-fe aus Paris」이다. 1830년과 1833년 사이에 보내진 115편의 書信은 「1830년대의 역사적 문헌으로서, 맹렬한 민주주의자이며 정열적 애국자로서의 증거로서, 그리고 독일의 초기 저널

- 4) Manfred Windfuhr, Das Börne Buch. In: Revolution und Reflexion, Metzleri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1976, S. 110
- 5) 「Börne scheint jetzt wirklich von den Deutschen kanonisiert zu werden...-es ist wahrscheinlich, daß ich mein Stillschweigen über ihn breche. ...」 Zit. in Dichter über ihre Dichtung, Bd. 8/I, hrg.v.Norbert Altenhofer, Heimeran Verlag München 1971, S. 414
- 6) Manfred Windfuhr, Heinrich Heine, Revolution und Reflexion, Metzleri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1976, S. 185 Zit.n. Thomas Mann, Gasammelte Werke in zwölf Bänden, Frankfurt 1960, Bd. X, 839

리즘의 古典的 산 기록으로」⁷⁾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역사적인 것

하이네와 뵘베가 보여 주는 대립적인 요소는 상호 근본적인 성격차이에도 있겠으며 또한 당시 정치 사회적인 현실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은 중요할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유럽의 현대 사회를 그 역사적인 조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始發點으로 흔히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그 신흥탄이 올려진 산업혁명을 든다. 17세기 말엽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전반에 전 유럽에 퍼져나갔던 산업화 과정이 산업혁명이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그 출발지점에서 부터 곧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혁명> 이라기 보다는 <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일정한 기간에 대한 지칭 이상의 것이었다.⁸⁾ 프랑스 대혁명으로 절대군주와 그 앙시앵 레짐 (ancien regime)이 몰락하고 민주화의 현대적 과정이 처음엔 국가의 각 조직에서 다음엔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점차적으로 수행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되었던 산업화 과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았다. 이 두 <운동>은 서로 無關하지 않았고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相互作用하는 가운데서 점진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는 兩者의 상호 깊은 관여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사건과 그것과 연결되어진 전 과정은 전통적 사회 질서 삶의 질서의 해체 내지는 몰락을 신흥하였으며, 새로운 생활 형편을 출현시켰다. 산업화 이전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국민의 90% 이상의 生業이 걸려 있던 農耕, 둘째로 엄격한 신분 계급적 사회 제도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종교적 도덕적 결정권이 위압하였다.⁹⁾ 교회의 이 같은 기능적 측면은, 전통과 사회의 위계 질서를 神의 意志로 해석하여 모든 규범을 敎權制度 아래로 종속시켜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절대군주가 전 국민의 10%이내의 귀족 승려와 결탁, 나머지 90% 국민 위에서 神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군림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산업화 과정은, 18세기 초기에 이미 산업화의 조건이 구비되었던 英國에 비길 데 없이 늦게 시작되었다. 18세기 중엽에 까지도 국민의 10%가 도시에 거주하였으며 80%가 직접 農耕에 종사하고 있었다. 1800년 경에 베를린의 인구수가 20만, 함부르크엔 10만 남짓 있었으

7) Kindlers Literatur Lexikon in dtv, Bd. 5, S. 1635

8)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Das 19. Jahrhundert 2, hrg.v.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75, S.1 參照

9) ebd.

며, 1858년 까지도 쾰른(Köln) 市域의 45%가 포도원과 와일, 채소의 재배지로 되어 있었다.¹⁰⁾ 독일 국민생활의 이와 같은 농경적 성격은 생활의 地平, 정치 종교적인 여러 문제들과 연관이 지어져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치 발전의 側面에서 보아 산업화 과정이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던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절대주의의 소멸이나 혹은 弛緩에 있어서 더딘 걸음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다.

비교적 늦은 독일의 산업화 과정의 원인은 우선 유럽 최대의 전쟁이던 30년 전쟁을 꼽을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反종교개혁의 對立, 新敎와 旧敎사이의 세력 다툼이었던 이 전쟁은 처음엔 북부와 남부 독일에서 外勢의 개입 없이 불타가 생겼다가 점차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外勢가 形成, 독일은 전 유럽 세력의 角逐場이 되었다. 전쟁이 할킨 자국은 매우 심각하였다: 황폐화 되어진 國土, 도탄에 빠진 국민생활, 그리고 국가는 거의 해체되다싶이하여 355개의 군소 국가와 군소 도시국가로 분해되어 실질적으로 느슨한 연방국가의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막강한 세력을 규합한 지방 제후들은 프랑스의 모형에 따른 <제후의 절대주의> 체제를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의 作態는 <우스꽝스러>웠거나 <망칙>하였고 혹은 둘 다였다. 거기 에다 독일은 19세기에 까지도 사회적 정치적 上位를 종교적인 세계관의 강령으로 확보하려는 강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농민들의 굴종과 기반이 약한 시민정신 그리고 절대주의의 형태가 남아 있던 농업적 신분 계급사회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뿌려 날린 자유사상의 씨앗이 그후 몇몇 국가에서 혁명적 소요를 초래하는 등, 외형적으로 정치 사회 조직이 확고하였던 국가에 까지 도전적으로 작용하였고, 봉건주의나 왕이나 제후의 一人독재인 절대주의는 서서히 붕괴되어 나갔다. 1807년의 교황칙서는 농민해방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807년에서 1812년 사이의 개혁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下部에서 부터 일어나는 혁명 봉기를 미리 막을 셈으로 국가가 주도권을 잡고 단행한 것이었다. 現代的 국가에로의 길은 일반통행식 구속만으론 충분치 못하며 일반의 衆論에서 자극과 국민적 자발성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하겠음을 혁명의 악순환에서 배웠던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경제체제, 전통적 신분사회의 폐지등에의 문은 열렸지만, 특권층의 특혜 계급제도의 완전한 철폐, 통일된 독일을 소망하던 젊은 지식층에겐 미흡한 것이었다. 많은 自由思想家들이 정부의 엄격한 검열의 보도통제와 반대파에 대한 억압정책으로 박해를 받았다. 파리에서 날아든 1830년의 혁명의 소식에 접한 젊은 作家들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보도기관을 통한 여론의 형성, 시민의 권리, 진정한 참정권등의 발전적 요소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문학적 재능을 사회 개혁운동의 촉진에 바침에 散文이 목적달성에 최선의 수단이며, 신문이 가장 적당한 기관이라 생각하였다. 구츠코브(K. Gutzkow)는 이제 문계

10) ebd., S. 2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市民」이라 하여, 人間의 內面的 완성과 정신의 高揚에 보다는 사회 현실에 억압받는 대중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시기임을 선언하였으며, 독일 최초의 사회혁명적 不法의 伝單인 뷔흐너(Büchner)의 「Hessische Landbote」는 1834년 7월의 날짜 아래로, 사회 현실의 근본적 개혁을 희망하고 독일 국민의 혁명에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라우베(H. Laube)도 그해 체포당하였다. 뷔르네의 「Briefe aus Paris」의 출판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혁명의 도시 파리로 줄지어 건너갔다. 하이네가 파리에서 자리를 뜬 것도 이와 때를 같이하였다. 183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公表된 <연방議決(Bundestagbeschlüsse)>은 自由주의적 정치結社와 그 集會의 금지 뿐만 아니라 이들 젊은 作家들의 作品까지도 금지하였다.

3. 革 命 과 省 察

뫼팅겐과 베를린에서 法學수업을 마친 이십 팔세의 하이네는 함부르크의 은행가이자 백만장자인 삼촌 살로몬(Salomon)의 재정적 지원으로 차렸던 수공업 공장을 倒産시키고, 베를린 대학교수직 자격시험에 실패, 함부르크에서 변호사 개업 구상이 無爲로 돌아가, 하마터면 문헌대학교수가 될 뻔하였다가 그의 反宗教的 작품이 말썽이 되어 놓쳐, 겨우 어느 정치잡지의 편집자의 자리를 얻었다. 그해 여름 자유분방한 성격에 따라 그는 北海孤島 헬고란트(Helgoland)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파리 혁명의 소식에 접한 것이다. 회고록의 제 2권은 Helgoland 滯留 당시의 日記形式의 기록인 데, 그의 친구 라우베의 권고에 따라 회고록이 쓰여진 9년 후의 관점에서 다소 내용의 수정을 거친 후에 삽입되었다. 이는 작품의 技術的 구성에서 책 전체의 넘치는 뷔르네에 대한 反感, 개인적인 人身공격의 위에서 그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마련해주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파리혁명에 열광한 하이네는 그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썼다.

8월 10일 헬고란트.

라파이에, 三色깃발, 마르세이에즈 …… 휴식을 동경하던 마음은 사라졌다. 이제 다시 내가 하고싶은 일과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 혁명의 아들인 나는 …… 다시금 …… 그 不死神의 무기를 손에 쥘다 …… (B. D.- 383)

미국 독립전쟁에 장성 군인으로 참전하였고 혁명 초기의 인권선언을 기초했던 칠십이 넘은 라파이에(Lafayette)가 老驥에 은발을 날리며 프랑스 국가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다시 민중의 先頭에 섰다. 파리혁명은 감동한 하이네에게 <독일의 해방>에 대한 은밀한 희망을 마음속에 불어 넣었다. 점점 커지는 정치적 不自由와 어려워지는 文學活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필라 戰을 피하여 파리 주재 특파원의 자격으로 이듬해 1831년 5월 1일 하이네는 파리에 도착하였

다. 파리에서 그는, 그보다 일년 먼저 건너와 독일 망명인 정치 집회를 이끌며 혁명과정을 보도하던 뵘베와 그의 추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서너 번의 개인적 대화¹¹⁾는 兩人으로 하여금 상호 방향을 달리하는 정치적 이념과 태도를 확인 시켜줄 뿐이었다.

A. 정치적 理念과 정치적 態度

그러면 兩人의 정치적 태도와 이념이 어떻게 달랐으며, 그 相異한 것들의 서로 배척하는 要素의 정제와 그 근본적 본질의 所在를 兩人의 相互비평을 통하여 비춰내 본다.

회고록의 序說的 說明部인 일권에서 하이네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던 뵘베를 찾아 3일간 함께 지낸 일을 돌아보면서,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미 단지 政治分野에서만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B.D.-364)고 하였다. 그들은 정치의 민주화와 인류의 해방의 편에 서서 그것을 爭取하려는 理念的 투쟁에 의견이 같았다. <독일의 해방> 즉 <인류의 해방>에 기여하는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희망도 같이 하였다. 당시 그들의 요구는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인 「자유」 「평등」 「박애」에 그 뿌리를 두긴 하였어도, 1815년 Wien 회의 결과 Metternich로 權化된 立憲君主國 이상은 아니었다. 모든 결정기관의 中央集中化, 관료적 행정기관의 構築 직업군대의 양성이 特徵인 절대군주제도의 폐지가 요구되었지만 1848년 이전까지의 독일은 國民議會가 立法과 국가예산의 결정에만으로 권력이 제한되고, 행정 對外政治, 국군통수등의 國事に 관여하지 못했던 君主制度에 만족하는 中道的 입장을 견지하였다.¹²⁾ 뵘베도 이미 그와 같은 思想을 확립하였음이, 「뵘베의 모든 생각은 메테르니히(Metternich)로 歸結되었다」(B.D.-349)는 하이네의 지적에서도 나타나 있다. 파리에서 하이네는 뵘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놀라움을 3권¹³⁾의 序頭に 앉혔다. 「얼룩덜룩한 비단천으로 된 헐렁한 밤까운 속의 「바닥 여원」 뵘베의 육체적 변화에 이어서 「그 용모와 동작 위에 숨어 영어리져 있는 惡意」를 발견하였다.(B.D.-389f). 고갈된 육체의 貨刃엔 高擲된 精神의 借刃이란 법칙이 암시되어, 精神이 인간의 육체에 붙어넣어진 <神의 숨결>이라 생각하는 自然神論者의 一面을 부각하였다. 그의 自由主義 사상과 自然神論的 傾向의 혼합의 구체화로써의 뵘베가 지닌 本質을 하이네는 1권에서 이미 「自然神論者인 동시에 自由主義者(Der Deist und Liberale)」(B.D.-347)로 표현하였었다.

이와 같은 뵘베의 본질적 性向으로 규정된 것과 그것이 초래하게 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11) 하이네와 뵘베의 만남은 국내에서 1회(프랑크푸르트, 1827년), 파리에서 4회(1831년 9월 26일, 동년 10월 3일, 동년 10월 25일, 1832년 5월 27일)가 전부임. (Briegleb 參照)

12)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Das 19. Jahrhundert 1, S. 1-12 參照

13) 3권은 파리에서의 상봉을 다룸

결과로서의 모든 現狀을 하이네는 두려움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뵘베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 마라 (Marat)는 전적으로 옳았다. il faut faire saigner le genre humain,¹⁴⁾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30만 人頭를 그에게 허락했다라면 수백만의 더 훌륭한 목숨들이 파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는 오랜 불행에서 영원히 治癒되었을 것이다. (B.D.-390)

…… 自然宗教만이, 共和國만이 우리를 救濟할 수 있다…… 우리들 혁명가들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 (B.D. 391)

여기서 뵘베의 과거 급진주의에로의 선회가 이미 끝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2차 對面의 자리에서 뵘베는 하이네에게 공동 출판계획의 腹案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을 청하였다 한다.¹⁵⁾ 당시의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편지로 교환하고 나중에 그것을 모아 출판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하이네가 협력을 거부하였는 데다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霧散되었지만 뵘베의 그것의 동기를 쓴 글에도 心中의 과거, 단호함이 엿보인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中道를 포기하였다. 지금 까지 해온 대로 정치 기사를 글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中道란 無力으로 간주될 뿐, 無力은 衰頹을 어리석음에 정당성을 촉구할 뿐이다. 내가 계획 중인 잡지의 卷頭에서 대담한 선전 포고로서 등장하리라.¹⁶⁾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최초의 相面과 파리에서의 再會사이엔 「18세기를 완전히 돌로 쪼개었음」 (B.D.-388) 뿐만 아니라 兩人을 정치적인 문제에서 아주 배놓았던 파리혁명이란 다리가 걸려 있었다. 그때의 無邪한 유모어, 친진성에서 지금의 「쓰디쓴」, 「피에 주린」, 「매우 건조한」 (B.D.-392) 언어로, 그 때의 중도적 입장에서 「思考의 Sanckulottismus」 (B.D.-395)¹⁷⁾ 「선동가적 재능」, 「超極端的 語調」 (B.D.-395) 「피에 주린 感傷性」 (B.D.-403) 으로

14) 「인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 (인류의 구제를 위해서는)

15) Klaus Briegleb, Kommentar und Textanmerkungen zu 「Ludwig Börne. Eine Denkschrift」 Im 4. Band der Hanser Ausgabe H. Heine, Sämtl. Schriften, S. 702

16) ebd.

17) Sanskulotten (sans-culottes = ohne - (Kniebund) Hosen) 은 파리의 小市民層으로 구성된, 확고히 결속되지 않은 社會集團, 시위, 請願, 폭력행사로 下層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였음. 긴 바지 (Pantalone) 를 즐겨 입었다함.

판단된 뷔르네의 變身의 시작은 파리혁명이 메꾼 간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혁명의 감격이 물러간 후 9년이 지난 時点에서 당시를 하이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혁명의 도시 [파리]에 도착 첫 날에 이미, 실제로 나타난 일들이 멀어서 나의 열광이 한 조명효과가 빚어낸 빛갈과 전혀 다른 색을 띄우고 있음을 알았다 …… 1830년 7월, 국민들은 귀족들 대신에 등장한 부르주아지의 승리를 위한 싸운 셈이었다. 그들 또한 그들의 동일한 성질의 利己主義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 국민들이 그 승리로 얻어낸 것은 후회와 더 심해진 困窮 이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 (B.D., -388 f)

귀족과 地主들과 같은 특권층의 권력제한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선거권자의 수만을 조금 늘였을 뿐인 혁명 후의 시책에 대한 하이네의 실망이었다. 뷔르네도 이 보다 앞서 혁명의 결과에 대하여 실망과 悲哀를 편지로 써 보냈다. 「용기는 悲哀를, 悲哀는 용기를 꺾을 수 없는」¹⁸⁾ 그의 心中을 전하였다. 兩人的 실망은 계속되는 혁명을 통해서도 프랑스 혁명의 自由主義란 理念 자체의 內面化의 수행에 있어서나 국민들의 질곡의 생활에 아무런 발전을 보지 못한 데 있었음은 명백한 일이었다. 한 체제속에서 억압되어 저항하는 개인의 생활에 <혁명>이란 수단을 통하여 자유와 발전을 기대했던 兩人에게는 七月 혁명이 남긴 결과에 대한 실망은 컸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냉정한 理性이 자리잡게한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 그 <自由主義>가 <教條的 自由主義>로 변모하여 그것은 그의 理性을 마비시켜서 感情을 자극함으로써 그의 行為의 충동성과 과격성을 유발시켰다고 보여진다. <理論的 省察>과 <경험적 관찰>의 길로 들어선 하이네와는 달리, 혁명의 이념이 도그마적으로 작용했던 뷔르네에게는 <大衆의 힘>의 필요는 필연적 순서였다. 변신한 뷔르네의 주위엔 독일에서 파리로 건너온 젊은 망명객들이 몰려와 뷔르네를 追從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手工業者나 나이 어린 徒弟들로써 어떤 정치적 理性이나 理念, 世界觀도 없이 단지 革命에 현혹된 無知한 大衆일 뿐이라 하였고, 이들 앞에서 뷔르네는 이른바 「山上설교」를 했다고 하이네는 야유하였다 (B.D., -401). 루터 (M. Luther)나 단톤 (Danton)의 <山上설교>를 암시하는 이 표현 속에는, 理念의 教條的 한 면이 그것이 다른 분야에 미칠 나쁜 영향이란 다른 側面이 들어있을 것이었다. 共和急進主義者가 되는 메엔 예리한 頭腦의 활동이 필요치 않았던 이들의 「담배연기 자욱한」(B.D., -402) 집회에 참석했던 하이네의 정신의 유연성은 자신을 그들과 同一視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때 부터 하이네는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태도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¹⁹⁾ 그의 친구 파른하아겐 (Varn-

18) Briegleb, 앞의 책, S. 701 (뷔르네의 1830.9.7. 편지)

19) … als ich in Paris der obenerwähnten Volksversammlung beiwohnte, fand ich sämtliche Vaterlandsretter mit Tabakspfeifen im Maule, und der ganze Saal war so erfüllt von schlechtem Knasterqualm, daß er mir gleich auf die Brust schlug und es mir plattatting unzmöglich gewesen wäre, ein Wort zu reden… Ich kann den Tabaksqualm nicht vertragen… (B.D., -402)

hagen)에게 보낸 편지에도 「현실에 선동적」 태도를 버리고 「정치를 떠나」 「주로 예술, 종교와 철학에 몰두」할 것을 다짐하였다.²⁰⁾

하이네는 大衆의 粗野性에 매우 민감하였다. 교양없고 無知한 愚衆과의 개별적 접촉을 꺼려하였음은 그의 때묻지 않아 순수하며 예민한 詩人의 本性이 당연히 꺼려하는 바였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들이었으나 비르네는 자기의 정치적 정당화의 도구로 삼았으며, 그들 또한 장차 신념의 무리로 변하여 힘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하이네가 두려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趨勢였다. 회고록의 여러 곳에서 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들에 대한 그의 혐오와 詩人의 높은 정신이 <손씻음 (Hände waschen)>이란 표현을 빌어서 나타나 있다.²¹⁾

B. 나사렛의 인간과 헬라의 인간

비르네의 變身에 기여한 變數를 하이네는 그 論理性和 倫理性和 그리고 그의 深層心理의 分析을 통하여 비추어 내었다. 그 分析을 위하여 하이네는 人間類型을 二大別하였다. 하이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다 : 즉 禁慾的, 反教養的이며 精神化에로의 病的 憧憬을 지닌 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棄天的이며 精神의 向上에 긍지를 가진 現實的 本質의 소유자이다」 (B.D. -351). 여기서의 <유대인> 혹은 <나사렛인> 그리고 <헬라인>의 표현속에 내포된 뜻은, 当該 民族에 대한 指稱이 아니라, 그 민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신적 向方과 그 世界觀이다. 前者는 모든 精神化의 樞軸인 <기독교인>을, 後者는 古代 <회람인>을 뜻하였다. 前者의 代表的 인물로 비르네를 내세웠고, 當時의 文化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神>으로 군림하던 괴테를 後者의 總帥라 하였다. 人生觀이나 世界觀에 따른 인간의 이러한 二大別은 文學을 <感傷>과 <素朴>으로 나눈 바 있던 쉴러 (Schiller)와 대강 비슷한 느낌을 준다. 자기 자신과의 自然的 結合과 精神과 肉體의 융화속에서 살고 있는 後者의 사람들이 종교적, 현실적, 쾌활한 面을 보인다면, 각각의 憧憬과 欲望과의 투쟁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여 善을 행하려는 前者의 類型은 자신의 신념과 志操에서 가치를 찾는 目的的, 行爲의 또한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기독교 세계와 古代회람 세계가 두 개의 대립된 德제로써 마주 세워졌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 논쟁이 終息되고 있지 않은 兩大 德제를 하이네는 본질적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周知하는 바 비로 精神과 物質, 예술과 정치, 이상과 현실, 내용과 형식등과 같은 世력의

20) Briegleb, 앞의 책, S. 736

21) ... es ist aber durchaus nicht bildlich, sondern ganz buchstäblich gemeint, daß ich, wenn mir das Volk die Hand gedrückt, sie nachher waschen werde. (B. D. -402)
 ... Sieh, wie schön ist sie und rein! Sie ward nie besudelt von dem Händedruck des Pöbels... (B. D. -454)
 Ich würde meine Hand waschen, wenn mich das souveräne Volk mit seinem Händedruck beehrt hätte. (Geständnisse, S. 497)

모순과 대립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詩와 道德, 才能과 個性, 意圖와 文体 등의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작품 전체를 통하여 主題的으로 작용한다.

하이네에 의하면 <독일의 종교와 철학>은 1500년 이후 두 차례의 革命을 겪었다 한다. 첫 번째의 혁명은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기독교를 중세 기독교의 敎條的 독선적인 교리에서 이끌어 내어, 神學에 있어서 聖書解釋의 자유와 그 학문성의 기반을 놓음으로써 <思想의 자유>란 大前提를 인간에게 돌려주었다고 보았다. 제 2혁명의 수행을 담당한 것은 데카르트(R.Descartes), 칸트(Kant), 헤에겔(Hegel) 등의 近世哲學이었다. 哲學을 神學의 시녀役에서 해방시켰으며 그것은 철학의 자율성이란 원칙의 定立을 의미하였다. 自然, 肉體 그리고 물질이 精神, 靈魂, 天上的인 것등과 구별되어 下級價值로 평가되던 기독교 세계에서 록크(J.Locke)의 경험주의, 칸트의 비판철학, 스피노자(Spinoza)나 피테의 汎神論은 매우 중대한 도전이었고, 또한 정신에 대한 물질의, 영혼에 대한 육체의 復權의 형태라고 생각하였다.²²⁾ 神과 世界의 구별이 없던 古代 회람세계에 기독교의 神學에 의하여 생긴 구별과 그 균열을 현대 철학자들이 다시 결합시켜 조화를 시도하였다고 보았다. 禁慾과 회생의 쇠르네와 헬라인으로 自然하는, 社會 不正義와 비참이, 경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輕視하여 배격하는 기독교적 唯心論에서 유발되었다고 보고, 罪없이 生애의 발랄한 정신을 추구하던 하이네의 사이엔 이처럼 쉽게 건널 수 없는 乖離가 있었다.

하이네는 쇠르네의 나사렛적인 특징의 하나로 <主觀의 偏狹>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그는 [쇠르네] 주관적 偏狹에 사로잡혀 피테의 표현방식인 客觀의 自由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술적 형식을 그는 無情態라 생각한다. 회람시대의 조각품의 훌륭한 의미에 대하여 후주의 豫感도 없이, 단지 그 대리석 형태를 만져본 다음 그 차거움을 호소하는 어린애와 흡사하다. (B.D.-344)

肉과 靈의 조화가 生命의 빛이 되어 나오는 회람의 예술품에 대한 이해는 精神이 개체내에 幽閉되어서는 불가능하였다. 그것은 보편적 개방적 개별적이면서 通視的인 客觀정신의 결여였다. 精神의 自由에의 前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客觀精神이며, 그것의 결핍은 더 나아가서 外界의 內面的 移行, 다시말하면 概念的 移行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이네에 의하면 쇠르네의 그와 같은 주관적 偏狹은, 目前의 현상에의 반응만 보여주는 그의 情叙와 따라서 遠視의 방향의 상실에서오는 悲憤懣慨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神의인 존재였던 피테에 대한 적개심도 쇠르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²³⁾ 쇠르네가 피테를 불러 「집장이」, 「친박한 아첨꾼」 등으로 비난한

22) M. Windfuhr, 앞의 책, S. 147 參照

23) B.D. - 350, 354 參照

속엔 그러나 하이네가 주장하는 小人의 감정 보다는, 당시 유럽 전역의 혁명이란 정치적 혼란기에 처하여 시대와 정치적 현실에 무관심했던 괴테의 태도와 그것이 독일의 정치발전에 미칠 惡影響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이네도 역시 괴테 예술의 完成된 회람적 形式美를 「대리석 諸神像」이라 했고, 그것은 대리석의 <차거움>이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비유를 통하여 그의 安定 一辺倒的, 시대와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이기주의의 차거운 바람을 비꼬았다고 하겠다.

精神의 客觀的 自由가 內面的 수행을 거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술과 삶에 대한 이해와 기쁨이며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뢰르베와 그를 중심하는 모임의 사회 정치적 이념은 민첩한 두뇌의 忍苦의 産物일 수 없고 정신의 뜨거운 구조물이 아닌 「거칠은 손들」(B. D.-400)이 마구잡이로 빚어낸 것이며,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그들에게 갖다준 理念들의 독선적 작용의 결과로 論理에 맞지 않았다고 보았다.

C. 예술과 정치 혹은 才能과 個性

뢰르베의 과격 급진적 공화주의 사상의 본질은 그의 나사렛인적인 <편협성>에 그 뿌리를 둔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이나 인간성의 해방이란 目標와는 별개의 것으로 非論理的인 독선적 이념의 자기 주장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뢰르베의 하이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이네는 예술가이다. 詩人이다.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알려진 칭호를 자기 자신만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詩人으로 보다는 좀 달리 되어보자는 데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래서 처럼 形式이 最上인 者에게 그것 [形式]만이 唯一하게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 그가 真理를 말한다 하더라도 確信이 그에겐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真理 중에서 단지 그 美의 부분만을 사랑하겠으므로. (B.D.-456)

真理의 內容보다 그 外皮인 形式美에 더 애착을 보였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하이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하이네는 인정하지 않았다. 예술가의 「柔弱性」, 「쾌락성」은 (B.D.-457) 늘 아름답지는 않은 真理를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의 文學을 「個性 없는 文學」(B.D.-454)으로 멀어 뜨렸다. 뢰르베는 하이네를 가르켜 「戰爭의 渦中에서 나비를 쫓는 철없는 소년」,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應배당안에서 예쁜 아가씨들에게 눈독을 들여 시덕거리는 不道德한 行爲」(B.D.-456)에다 비유하였다. 「個性(Charakter)」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은 뢰르베였다.

하이네는 자신의 內面에 相衝하는 두가지 本性으로 「자연적인 嗜好에, 환상적인 방법과 思考에 몰두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 없는 상태에의 憧憬」을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년감을 발행하라, 시사해설을 하라, 혁명적 소망을 품어 정열에 불질을 당겨야 했다」(B.D.-367). 自然에 대한 詩人の 열광과, 정치적 독재자들로 부터 박탈당한 자유를 가난한 百姓에게 찾아주려는 정열의 투쟁에서 그러나 그를 이끌어 執筆하게 한 것은 後者였다. 하이네는 뷔르네가 들고나온 「個性」의 문제를 취급해야 할 필요성에 도달하였다.

“個性”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떤 일정한 人生觀의 일정한 範圍 내에서 생활하면서 管理하며, 동시에 자신을 그것〔人生觀〕과 同一視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思考와 感情과 결코 모순에 빠지지 않는 者가 個性 있는 사람이다. (B.D.-452)

古典的 文체로 하이네는 個性의 概念 규정을 하고나서, 매우 出衆한, 當時代 위로 우뚝 솟아있는 精神들의 활동 범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眺望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個性의 有無조차 모른다하여 뷔르네와 그 중심세력의 近視眼을 나무랐다. 그들 精神的 弱視者들은 높은 精神들의 意志와 蓋然性이 끝나는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서 아무런 權能도 實現성도 간파할 능력이 없다 함으로써 뷔르네가 주장한 <無定見> <無個性>은 그의 偏狹한 人生觀의 間接적 投影을 시사하였다(B.D.-453). <愚昧>의 표시라 한 것은 大衆들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어서 <個性>으로 추앙받는 일이었다. 作家의 경우엔 그것은 더욱 염려스러운 일인 즉, 作家들의 행위는 <말>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하여 하이네는 作家의 個性이 文体에 나타나 있다는 原則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며, 순간적 着想이 아닌 客觀이 <말>을 움직이는, 말에 복종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作家에게 그 原則은 적용될 수 없었다. 뷔르네의 書信의 文체와 비평까지를 포함하는 이 論評은 그것을 「순간에의 노예와 같은 献身」 「예술성의 欠如」(B.D.-453)로 암시하였다. 현실의 직관적 파악을 통한 自我와 他界와의 관계 定立이란 독자적 目標追求란 점에서, 그리고 이 思考의 內面的 實現없이 정신의 위대성이 不可能하다는 점에서 정말 <個性>이라 불러 마땅한 것은 愚昧한 大衆에서가 아니라 바로 詩人の 屬性에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이네에게 있어서는 <美>와 <道德>이 同一線上에 있어 보인다. 예술작품과 그 정치적 참여에서 본다면, 하이네는 美的인 것을 위한 정치적 참여 편에 있으며, <美的인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所謂 <既存하는 것에 대한 異意>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이네의 이같은 獨自性은 그의 고립을 면치 못하게 하였음은 당연하였다. 그의 미묘한 中立地帶는 當時 兩大 파당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 가련한 하이네는 그러나 등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 그는 귀족들의 주먹사색과 동시에 민주주의자들의 주먹세례를 두려워하며, 그 兩面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同時에 앞으로와 뒤로 움직여야 한다. (B.D.-458)

하이네의 정치적 中道를 비웃는 뢰르네의 말이다. <中立> 혹은 <中道>는 여기서는 가장 확실하게 위험지대 밖에 서 있을 수 있는 방책의 의미이며, 쌍방에 아첨하는 교활한 처세술의 의미이다. 당시의 정치무대는 立憲君主制를 옹호하는 구세력의 귀족들과 共和政만을 유일한 해결로 보았던 급진 공화파로 나뉘어져서 對話를 통한 화해의 능력을 상실하고 피비린내나는 反目만 일삼던, 근본적으로 이념과 철학을 달리하였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의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념의 하이네는 그들과 자신을 同一視하여 어느 한 편의 정치적 행위에 가담할 수 없었다.

- 그렇다. 나는 所謂 정치적 訣別書를 받고 同時에 파르나스 (詩文學의 本山)로 온 괴를 강요당하였다. 언급한 兩大 당파의 내막을 아는 첼라면 그들이 나에게 詩人の 칭호를 내리준 반응을 좋게 평할 것이다. 一黨은 詩人에게서 無用한 理想을 꿈꾸는 아첨꾼 밖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一黨은 詩人에게서 전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B.D.-452)

하이네는 나의 눈엔 대단히 價值있는 첼로 비침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過大評價하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 自己過大評價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요컨대 個人的 活動을 과대평가함을 비난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 多數이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國民의 伝承이지…… (B.D.-457 f)

정치적 목표달성은 個人的 獨立된 單獨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닌 集團的인 企圖에 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뢰르네의 말이다. 일정한 정치적 목표달성은 각기 다른 성질의 각기 다른 행위의 병행이 아니라 同質行為의 연속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였다. 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쟁도 不辭하는, 그 목적실현 과정에서 在順右隨없이 타협 없는 길을 선택한 뢰르네와는 달리, 하이네는 多様성과 複合的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물의 兩面性에의 깊은 인식에 도달하여 있었다. 앞서의 兩大 대계의 모순 대립에서도 하이네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회생 위에서 存立함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서도 그의 調和의 사상은 시종일관하였다. 당시 공화주의자들의 정치적 혁명이 갖다주게 될 인간의 명등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하여 고통받는 첼들을 잠시나마 그 격심한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美의 마지막 발자취의 회생」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外傷의 치유로 사회적 음의 제거엔 성공할 지 모르나 그 내면의 부패를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라 내다 보았다 (B.D.-462). 예술의 회생 위에 정치가, 個人의 天才의 추방 아래 국가의 존립이, 개성을 짓밟는 인간평등이 실현에 하이네는 反旗를 들었다. 급진 공화파의 청교도들 사이엔 <美>와 <天才>가 들어설 구멍이 없어 보였고 그들 지배의 統治는 과거 어느 統治보다 더 가혹해질 것을 하이네는 염려했다. 왜냐하면 「美와 天才는 일종의 王權이며, 그리고 그것들은 自己 凡俗의 不信속에 安住하여 살아가는 個人이 보다 높은 才能을 格下시켜 陳腐한 수준으로 까지 끌어내리려 하는 사회엔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B.D.-462). 공화주의자들의 인간평등에 대한 하이네의 이와 같은 兩面性의 思考는 1843년 그가 맑스 (K. Marx) 와 교제 후에 공산주의에 언급한 귀결에서도 명백히 밝혔다.

…… 나의 後者〔赤裸裸한 共有의 공산주의 (feigenblatt loser, kommuner Kommunismus)〕에 대한 혐오는, 자기 富의 蓄積 때문에 건전공공하는 幸運兒의 두려움이나 혹은 그 수탈행위에 제동이 걸릴까, 두려워하는 致富한 장사아치들의 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대문명 전체가, 수 세기에 걸쳐 힘겹게 쌓아올린 業積이, 우리 조상들의 作業의 崇高한 結晶体가 공산주의의 승리로 받게 될 위험을 보는 예술가와 지식인의 숨어있는 공포다. 24)

예술이 하이네에게 모든 것을 뜻하는 마지막은 아니었으며, 그러나 예술과 정치적 자유는 相互 排除해선 안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D. 변증법적 해결

비르베의 나사렛적인 정신세계가 자유 사상과 合一이란 過激急進主義, 그의 정치적 國粹主義와 派党性에 대하여 하이네는 코스모폴리탄의 세계관, 中道的 自由主義者 그리고 非派党性으로 집약될 수 있는 일련의 思想이 作品 전체를 통하여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脈絡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비르베에 대한 자신의 사상적 優位를 주장함에 흔치의 양보도 없다. 혁명적 이념의 율법에 매인 비르베의 정신이 現實의 踏現像을 이념의 위에 둔 논리의 逆順을 범하였다면, 時代와 歷史의 발전에도 그 가치의 흔들림이 없을 久遠한 <어떤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파악되어진다. 일련의 마지막에 이러한 그의 思想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24) Geständnisse, S. 496

가련한 사람! 그가 탄 배엔 닻이 없었고 그의 가슴엔 희망이 없었다…… 나는 돛대가 부러지고, 바람에 끊어지는 닻줄을 보았다…… 그가 나 있는 데로 손을 뻗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손을 잡아주어서는 안되었다. 값진 貨物,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聖스러운 보물들이 틀림없이 파멸하게 버려두어서는 안되었다. 나의 배 갑판에 나는 未來의 神들을 싣고 있었다. (B.D.-366)

하이네가 그의 배에 싣고 있던 보물 즉 <未來의 諸神 (die Götter der Zukunft)>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그의 작품 어디서도 주어지지 않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잠시 <流配地의 諸神> <대리석 彫像>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天上과 地上,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의 구별을 들여놓았던 기독교 세계관의 승리로 地下로 流配되었던 회람의 諸神들은 彫像의 形態로 芸術에서 調和의 完成된 美로서 다시 등장하였다. 회람세계의 再登場은 精神 唯一思想에서 物質의 復權, 인간의 回復이란 자기각성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말한 兩大 체계의 止揚된 형태로, 둘의 調和로 파악될 것이다. 兩者의 변증법적 調和가, 이 「두 要素의 調和로운 混希가 유럽 文化의 과제」라 하였다. (B.D.-377)

언제나 調和가 다시 등장하게 될까? 언제나 世界는 다시금 그 精神化에로의 외골수 노력에서, 그 엄청난 誤譯에서 治癒될 것인가?…… 大求濟 수단은 정치운동과 예술에 있다…… (B.D.-372)

<다시>란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이 調和의 결에서 古代 회람인의 인생관의 재등장을 바라서 였다.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 그 根源을 두고 있는가? 그의 汎神論의 思想이다. 神의 존재는 世界와 人間의 内部에 깃들어서, 神과 自然은 對立하지 않고 同一하다. 따라서 세계와 인간도 神聖하다는 것이 汎神論의 입장이다. 이 汎神論을 정치적, 사회적 側面에서 民主主義 철학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았던 하이네는 그것을 통한 변증법적 극복인 調和가 그의 고백이었다. 인간 속에 同一하게 神이 그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汎神論의 파악은 인간정신의 순수성으로 하여금 그 神的인 것의 인식에로의 접근을 도운다. <국민의 人權>의 爭取에 보다 <인간의 神權>의 획득을 위하여 하이네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호소하였다 하겠다. <회람神>으로 불려 멀찌감치 올림피아 山에 높이 떨어져 앉아 <인간 없는 自然> 속에서 調和를 즐긴 피폐적 汎神論에 대하여 인간 중심의 汎神論을 통한 사회, 정치문제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꼭 같이 영광된, 꼭 같이 성스러운 꼭 같이 축복받은 神들의 민주주의를 심을 것이다. 25)

여기서의 <神들>은 古代 異教的 神도 유대교의 기독교의 神도 아니다. 이 神들은 분명히 <인간神>의 의미로 보아야 하겠다. 이것은 <인간의 神化>의 公表일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未來의 神들> 참 모습이 바로 <인간의 神化>에 드러날 것이었다. 국가의 권위에의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기독교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에 내려졌던 <연방의회 議決>이었던 만큼 汎神論의 사상의 노골적 표현은 당연히 삼가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암시적 묵시적 의미전달 방법은 하이네의 창작 手法의 성과를 보여주는 셈이었다. 뵘베의 다음의 비평은 단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평임을 모르는, <하늘보고 침뱉는> 格이다. 하이네의 정치적 美的 테크닉의 효과를 뵘베는 다음과 같이 가장 잘 증명해 주었다.

그 [하이네]가 숨겨야만 하는 것을 숨기려 하지만, 그 偏裝에서 그 정도에 까지 도 달시키지 못한다.

25) Wir stiften die Demokratie gleichherrlicher, gleichheiliger, gleichbeseligter Götter.

— Zusammenfassung —

Heinrich Heine und Ludwig Börne

Ob, Kwang Ung

Die Börne-Denkschrift diskutiert über die revolutionäre Verhaltensweise in der Zeit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Die Hauptfigur des Buches ist zwar Ludwig Börne, aber der Gegenstand dessen ist nicht die verstorbene Person Ludwig Börne, sondern dessen Position im Gegensatz zu der Heines. Heine stellte in seiner Denkschrift Börne als Gegentyp seiner Lebensanschauung hin, analysierte die Ursachen für die leidenschaftliche Wendung Börmes zum radikalen Republikanismus über und wollte sich selbst durch Kritiken über Börne stellen.

Heine war Journalist und Poet. Der Widerspruch von Kunst und Politik eröffnet das begriffliche Spannungsfeld, in dem etwa die Fragen von Poesie und Moral, Talent und Charakter, Inhalt und Form, Absicht und Still für wesentliche Richtungen stehen, und das sich über das Gegensatzmotiv von nazarenischem Spiritualismus und hellenischem Sensualismus bis in die dialektische Kontroverse führen läßt.

Debei ist für Heine das Ästhetische selbst Politikum, sozusagen selbst "Einwand gegen das Bestehende." Aber er geht weiter darüber hinaus. Er beruft sich auf eine Mission, die mehr als politische, als ästhetische ist. Die Idee der Harmonie beider Elemente, der Vergöttlichung des Menschen, der Götter-Demokratie ist seine utopische Zuspitzung.